



사업계획·예산등 심의 을 제1차 이사회 개최

지난 1월 27일 열린 95년도 제1차 이사회에서 금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심의 통과되었다. 이대원 회장 주재로 개최된 이날 이사회는 하오3시부터 6시까지 3시간동안에 걸쳐 상정안건을 토의 의결했다.

이날 상정심의통과된 안건은 ① 94년도 사업보고 및 수자결산, ② 95년도 사업계획 및 수자예산, ③ 95년도 연회비 부과, ④ 회비 정수에 관한 규정 제정, ⑤ 정회원 가입승인, ⑥ 95년도 상근임원 보수, ⑦ 임원 추대등 7개 안건을 상정하여 6개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임원추대안에 대해서는 회장 및 부회장 추대에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해 총회에서 경선을 통해 선임키로 하고 이사·감사 회사는 일단 추대안을 가결했다. 그밖에 안건별 결의 내용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사업추진의 기본방향 설정

95년도 사업계획에 있어 사업추진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특히 중형여객기 및 다목적 인공위성 개발 2차년도를 당해 협회차원의

총력지원과 아울러 협회의 기능을 확충하여 항공우주산업의 발전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기본 방향을 의결했다.

사업추진 기본방향

- 항공우주산업 발전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정책·기술의 개발 및 지원기능 강화
- 중형항공기 및 다목적 실용 위성 개발사업 총력지원
- 항공우주산업의 세계화를 위한 국제협력 기반구축과 경쟁력 제고
- 항공우주산업의 국민적 축망과 공감대 조성을 위한 지속적 홍보
- 항공우주산업 관련 기술 및 정보의 인프라 구축
- 행정서비스 기능 확충과 협회운영·재정의 효율화

세일중공업 가입 신규회원 가입승인은
(주)세일중공업에 대한 정회원 가입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세일중공업 현황

- 대표이사 : 이범재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292-20
- 공장 : 창원시 외동 853-5
- 자본금 : 1,494억 원
- 매출액 : 2,147억 원(93년)
- 종업원수 : 2,605명(항공부문 62명)
- 주요생산품목 : 공작기계, 차량부품, 주조품 등
- 항공부문생산품 : 소형항공기

감사·이사등 선임

7개사 유임, 2개사 추대
또 이날 이사회에서는 감사회는 유임키로 하는 한편 이사회는 기존 7개사는 유임토록 하 고 2개사를 새로 선임했다. 임원 선임은 총회 의결사항이지만 이사회에서 추대하여 총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여 이사·감사는 미리 추대한 것이다. 한편 정·

이사·감사 선임명단

소속	대표자	
대신금속(주)	박수현	유임
삼성전자(주)	김황호	유임
한화기계(주)	송재복	유임
한국로스트워스공업(주)	장세풍	유임
한국중공업(주)	이수강	유임
(주)한국화이바	조문수	유임
현대전자산업(주)	김주용	유임
LG정밀(주)	손기락	신규선임
(주)기아기공	김재복	신규선임
감사·오리엔탈공업	김문웅	유임

부회장은 총회에서 경선할 예정이다.

회원 지원에 역점

신년도 사업계획 개요

이날 이사회에서 의결된 95년도 사업계획은 정책개발 및 회원사의 기업활동 지원에 역점을 두고 총 10억5천만원 규모의 예산안도 아울러 의결했는데 이 의결안은 다시 총회의 승인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실무규정 확정

중형항공기 사업조합 심의위원회 열려

지난 1월 18일 한국 중형항공기 사업조합이 정식 출범한 후 조합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이 마련되었다. 한국중형항공기 사업조합은 2월 8일 협회에서 중형항공기사업조합 1차 심의위원회를 열고 사무국 운영규정,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조합원의 직원 파견에 관한 규정등에 관해 심의하여 규

정을 확정했다.

심의위원회는 통상산업부, 항공우주연구소, 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삼성항공, 대한항공, 대우중공업의 대표자 1인씩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중형항공기 개발사업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동 조합의 업무집행 실무기구인 사무국의 운영에 대해서는 1국 2부 체제(총 13명)로 운영되며 사무국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할 때까지 협회 기획관리이사가 겸직하며 관리부서장은 대한항공과 대우중공업에서 번갈아 1명씩 파견키로 했고 사업부서장은 삼성항공에서 파견하기로 하였다.

관리부서에서는 중형항공기 사업관련 행정 및 회계업무, 조합원 총회 및 심의위원회 행정업무, 사무국 예산편성과 관련한 업무, 조합원 대표자 및 심의위원 명단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고 부서장 1명과 부서원 4명으로 구성키로 했다.

사업부서에서는 심의위원회 상정 업무, 공동 개발 및 공동 작업반의 운영등 기술 업무, 조합

원 파견직원과 관련한 업무, 중형항공기 사업관련 국제협력 및 협상에 관한 지원업무등을 수행하며 부서장 1명과 부서원 6명으로 구성키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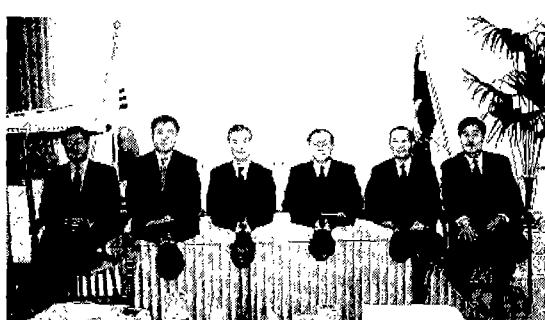
전시장 계약

'96 싱가폴 에어쇼 부스 5개회사 공동관 설치키로

96년에 개최될 싱가풀에어쇼에 국내 5개업체가 공동관을 구성하여 전시에 참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협회에서는 5개 업체를 대표하여 185.5 평방미터의 전시장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했다.

참가업체는 94년과 같이 삼성항공, 대우중공업, 대한항공, 한라중공업, 한국로스트워스공업등 5개사이다. 작년에는 전시장 본관에 부스를 확보하지 못해 별관에 전시하였으나 내년에는 본관내 네덜란드/벨지움관과 이스라엘관 옆에 자리를 마련하여 우리나라의 항공우주산업을 홍보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금년에 개최되는 파리에어쇼에는 참가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하고 프랑스 항공우주협회(GIEAS)측에 통보했다.



심의위원회후 기념촬영

상호협조등 협의

미 항공우주산업협회
부사장
Joel, Johnson씨 내방

지난 2월 14일 11시 30분 미국 항공우주산업협회 Joel Johnson 부사장이 협회를 방문, 광명구 부회장 및 김태희 국제담당이사와 한·미간 산업협력과 협회간 상호협조에 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는데 그 내용 요지는 다음과 같다.

미 항공산업계 : 루히드-마틴, 노드롭-그루만의 합병과 같이 미 항공산업계는 올해도 합병이 계속될 것으로 생각하며, 특히 4개의 헬기 회사가 병존하기에는 너무 많아 어느 회사가 어느 회사를 합병할 것인가가 관심거리이다.

중형항공기 개발 : MD-95 개발 여건은 MD사에 새로운 사장이 취임하였고, 자금의 여유도 있으나 공동개발 참여 회사 문제와 수요가 확정되지 않아 시작되지 못하고 있으며, 보잉사는 B-777 개발에 600억불을 소모하여 중형항공기 개발에 자금의 여유가 별로 없다.

미 협회 주관 국제회의 : 금년 미협회 주관 국제회의는 10월 4일부터 6일까지 아리조나주 투산에서 개최할 것이며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 바란다.

한·미 Subgroup 회의 : 금년 9월에 2차 한·미 Subgroup 회의를 개최한다면 작년과 같이 최대한 협조하겠다.

이 지연되고 있다.

공동설계 준비

중형항공기,
국내 준비팀 회의에서

중형항공기 국내 공동설계 준비팀 운영을 위한 회의가 2월 16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서는 공동설계팀 운영방안, 공동설계 참여 인력, 설계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준비에 관해 협의했다.

중형항공기 공동설계 준비팀은 삼성항공, 대한항공, 대우중공업 등 3개사의 인원으로 구성된다.

향후 일정등 협의

다목적 실용위성
연구책임자회의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연구책임자 회의가 1월 12일과 2월 10일 등 2차례 걸쳐 개최되었다.

1월 12일 개최된 2차 회의에서는 대한항공의 이건형 이사를 회장으로 선출하고 해외파견 인원 및 교육, 연구비 지급방법 등에 관해 논의했다.

2월 10일 개최된 3차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사업추진경과와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사업은 정부와 항공우주연구소간 연구개발계약, 항공우주연구소와 부분체 개발 주관회사간 계약, 부분체 개발 주관회사와 해외 협력업체(TRW사)간 개별 계약을 마치고 항공우주연구소와 TRW 사간의 공동연구개발계약만을 남겨놓고 있다.

당초 예정은 1월 말까지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으나 최근의 개각으로 과학기술청 장관이 경질됨에 따라 업무파악등으로 계약

관세감면 대상품목 조사

96년 적용위해

우리 협회는 관세법 부칙 제7조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첨단 시설재에 대한 관세감면 대상 회망품목을 조사중에 있다.

이 제도는 관세감면 회망품목을 매년 2월 말까지 재정경제원에 제출하면 정부에서 품목을 심사하여 억년초부터 1년간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협회에서는 회원사의 관세감면 회망품목을 제출받아 관계부서에 일괄 제출할 예정

인데 참고로 다음 품목은 관세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것임으로 대상 신청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 첨단프로젝트에 해당하지 않은 품목
- 대상범위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며 규격이 세분화되지 않은 품목
- 공장자동화기기와 중복되는 품목
- 관세지원액('96년 예정관세액 8%기준의 감면율 25%)이 3백만원 이하인 품목
- '96년 도입계획이 없는 품목

자료 2종 발간배포

세계 및 일본항공우주 산업 현황리포트

우리협회는 회원사 및 관련기관의 업무지원책으로 세계의 항공우주산업 및 일본의 항공우주 산업등 2종의 자료를 번역, 발간하여 총회를 기해 배포한다.

동 자료는 일본항공우주공업 회가 매년 발행하는 것인데 2권 모두 1994년판이다.

세계의 항공우주산업은 세계의 산업동향과 각국별 산업동향 및 통계자료로 구성되어 세계의 항공우주산업을 개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일본의 항공우주산업은 일본의 항공기산업, 일본의 우주산업,

일본의 항공우주용기기 및 소재 산업등으로 구성되어 각 분야별 산업현황과 정책대안이 상세히 기술되어 일본과 유사한 점이 많은 우리나라의 정책수립에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판식 거행

중형항공기 사업조합
15일부터 업무시작

한·중 중형항공기 공동개발 한국측 개발기관인 한국중형항공 기사업조합 현판식이 2월 20일 우리협회에서 거행될 예정이다.

동 조합 사무국은 협회내 여유 공간을 사용하게 되는데 우선 관리부서가 2월 15일부터 업무를 시작하고 사업부서는 8월경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현판식에는 통상산업부 정해 주 차관보와 조합참여회사 대표 이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다립니다

本誌는 회원 여러분의 소식을 비록 개인의 평범하고 그것이 본誌에 하나 둘 쌓여질 새로운 역사가 창조될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 회사소식, 개인소식 무엇이나 좋습니다.
- 관계된 사진 또는 대표자 사진 첨부하여 내용을 본지 편집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은 기록일망정,
때, 회원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